

내러티브 탐구를 통한 일 대학 간호학생들의 보건소실습 경험 연구

최 혜 정*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학파는 교육의 일차적 목표를 강의실에서 학습한 이론교육 뿐 아니라 학생들이 습득한 간호지식을 실제 현장에서 통합하고 적용하며(You, Yoo, park & Son, 2002) 타인들의 삶을 직접 관찰하고 간접으로 경험하고(han & Cho, 1999) 실습교육을 통해 실무 장소에서 대상자들에게 절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직 간호사를 양성하는데 있다. 각 학교의 보건소실습은 시기나 기간은 약간씩 다를 수 있으나 교육 프로그램 상 지역사회 실습인 전공필수 과목(Kwon, 2002)으로 대상자의 환경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적절히 제공할 뿐 아니라 실습 경험이 쌓여감에 따라 또는 실무 장소에서의 문제를 자주 접함에 따라 간호학과 학생들은 실습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학 중 경험하는 임상실습은 향후 면허증을 취득하고 임상에서 나가 간호사의 역할을 수행할 때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통하여 적합한 행동을 취하도록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실습 과정 중 높은 긴장감과 불안을 느끼며(Park, 2002) 당황하는 이른바 현실적 충격(reality shock)과 실습에의 회의

를 느끼거나 위축내지 좌절감으로(Park & Lee, 2002)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학생들로 하여금 간호에 대한 흥미를 잃고 실습에 대한 부담감, 자신감을 떨어뜨려 학습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으며 나아가 간호사라는 직업의 선택에 대해 회의를 가져오기도 한다(Ha, Park & Cho, 1998). 그러므로 간호 교육자들은 실습교육의 효율성을 검토하고 실습 상황을 점검하며 학생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확인하는 지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우리 교육자들은 학생들의 실습 경험에 대한 이해가 교육 연구의 중심 주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습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교수-학습 전략에 적용하는 체계적인 노력은 부족하였다고 하겠다.

본 연구 대상의 간호학과는 경우 같은 지역 내 소재 보건소와 근접지인 보건소 두 곳에서 4학년 1학기 2주 동안 보건소 실습에 임하게 된다. 그동안 간호학과 교수들은 주로 그들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학생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견해를 학생들의 견해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실습을 통하여 어떤 환경에서 무엇을 어떻게 경험하고,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교수들의 눈보다는 실습생들의 눈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어야 진정 그들을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실습 지도에 대한 효과를 좀 더 극대화 할

* 한중대학교 간호학과(교신처 E-mail: eunice0924@hanmail.net)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그들의 관점에서 바라본 경험 세계로 들어가 그들의 실체를 관찰하고 그들의 공유 언어를 통하여 자신들의 생활을 표현하는 이야기들을 함으로써 간호학생들의 현재와 미래의 실무를 준비할 수 있게 하는 보건소실습 지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실습학생들을 이해하고 관리하며 보건소실습을 지도하는 교수들의 교육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시도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학생들이 보건소에서 실습을 하며 겪은 그들의 경험세계를 주관적이고 총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어 간호학생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용어로 이해하고 설명함으로써 간호교육자들이 보건소 실습 간호학생들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3. 연구문제

간호학생들이 보건소실습을 통하여 모든 환경적 요소들과 상호작용하며 겪는 경험의 본질은 무엇인가?

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시간과 공간에서 발생하는 페러다임적 또는 논리-과학적 사고와 대비되는 내러티브 탐구를 적용하여 간호학과 학생들의 보건소실습 경험 과정을 이야기함으로써 보건소실습 경험에 대한 이해를 보다 명쾌하고 총체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내러티브 탐구방법을 적용하여 시도한 질적 연구이다.

2. 연구 방법론적 배경

내러티브란 한마디로 이야기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도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이며 삶의 모든 내러티브가 바로 이야기를 구성한다. 내러티브는 시간과 공간에서 발생하는 인과 관계로 엮어진 실제, 혹은 허구적인 사건

들의 연결을 의미하며 인간의 감정이나 내용을 전달하는 인간의 모든 행위를 뜻한다(Ahn, 2006) 물론 여기서 '이야기'는 행위, 사건들, 배경, 인물들을 포함하는 것이며 콜즈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 속으로 완전히 파고들어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이야기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하였다(Youm, 1999). 교육 연구에서 내러티브의 사용이 요구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인간은 이야기되는 삶을 이끄는, 이야기하는 유기체"(Connelly & Clandinin, 1990)이며 우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경험한 분야의 의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 역시 많은 질적 연구 방법 중 내러티브를 택한 이유는 교육 특히 교육 과정 분야의 핵심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학문의 세계에서는 어떤 어휘도 어떤 논리도 결코 절대적이지 않다. 학문의 본질은 언어가 부단히 재편성되고 갱신되어 가는 역동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회적 세계에서 경험하는 내용들 대부분은 대표적인 상징적 기호인 언어에 의해 의미가 만들어진다. 내러티브 사고의 의미 구성은 부모-자녀, 교사-아동, 아동-동료 또는 집단 속에서 만들어지는 공동 작업이다. 1980년대 이후 브루너에 의해 교육 분야에 처음 등장한 내러티브 사고는 인식론적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내러티브 사고란 무엇인가? 인간이 세계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고 조직하는 데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 자신의 의지대로 통제되는 것과 자신의 의지대로 통제 안 되는 내면세계이다. 전자는 원인-결과적 논리, 과학적인 페러다임적 사고로 인과적 영역을 다루는 것이며 후자는 삶의 세계를 경험하는 내러티브적 사고로 주체자의 관점에 따라 변화하는 예측 불가능한 세계를 다루는 것이다. Bruner는 서구의 전통적 교수 이론이 간주관성(intersubjectivity)의 중요성 인식에 실패했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내러티브 양식은 인간의 상황과 경험에 최대의 관심이 있으며, 경험이 가지는 의미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러티브라 주장한다. 내러티브로서의 자아는 인식론적 관점에서 본 자아로 페러다임의 전환을 뜻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존재론적 자아를 탐구해 왔다면 이제는 인식론적 관점에서 자아를 보아야한다. 내러티브는 단순한 이야기라기보다 인간 삶의 근원적이고 총체적인 이해자로서 참된 의미의 인

간학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간호학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하나의 학문으로 그 대상에 대한 논리와 언어를 탐구하여 왔다. 그러나 이제는 대상의 논리에서 벗어나 인간 존재의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의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경험을 연구자와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있어 보건소실습의 경험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3. 연구 참여자

일 대학의 간호학과 학생 중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하며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는 보건소 실습생 4학년 17명을 편의 추출하였으며 학생들의 신분을 보호해 주고 사생활의 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익명을 사용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연구 참여를 중단하고자 하면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음을 알렸다. 특히 서면화 된 자료를 수집할 경우에는 무기명으로 하여 제출하도록 하였고 실습 성적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알리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제출하는 것을 강요하지 않았다.

4.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재학 중 보건소 실습을 경험하는 2005년 4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진행되었다. 보건소 실습은 본교 간호학과 4학년 정원이 75명인 관계로 연구 대상인 학교가 위치해 있는 D시와 인근 S시 두 곳의 보건소를 실습 장소로 이용하며 학생들은 한 보건소를 8개조로 나뉘어 2주씩 실습에 임하게 된다. 연구자는 매 주 두 곳을 순회와 집담회를 하면서 참여관찰과 함께 현장 노트, 비형식적 대화, 비구조적이고 개방적인 질문과 설문지 등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습이 끝난 후 교내 연구자 연구실에서 자유롭게 이야기되는 내용들을 즉시 기록하였다.

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들을 시간과 공간에서 발생하는 인과 관계로 엮어지는 사건들을 이야기를 통해 진실 된 여러

의미를 찾아내도록 노력하였다. 분석 절차는 첫 단계로 학생들의 진술이나 비구조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읽음으로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하였으며 두 번째 단계로 대상자들의 진술로 내러티브 줄거리들을 발견하고 마지막 단계로 이러한 줄거리들이 작은 에피소드를 만들고 이 작은 이야기를 연결시켜 실습 학생들의 경험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의 정확도를 기하기 위하여 신뢰성에 있어서는 대상자와의 면담 내용을 즉시 녹취록을 작성하여 가능한 한 분명하게 정보제공자들의 관점을 알림으로써 양적 연구의 내적 타당도를 높이는 것과 같이 하였으며 응용성의 측면에서는 연구자가 자료로 기록한 것과 연구 상황에서 실제로 일어난 것이 일치하도록 노력하여 불분명한 것은 대상자들에게 질문을 함으로써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일관성은 유사한 맥락에서 같은 질문을 반복하였을 때 결과가 일관성이 있는가의 여부에 중점을 두었다.

III. 연구 결과

본 연구의 목적인 간호학 학생들의 보건소실습의 경험에 대한 환경적 요인 및 모든 실습과정을 이해하고 분석하여 보건소 실습경험이 어떤가를 규명하기 위하여 본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정서적 경험

본 연구에 참여하였던 간호학과 실습생들은 실습 나가기 전, 실습 동안 중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서적 경험을 하였다. 특히 3학년과 4학년 때의 임상실습 14주라는 짧지 않은 기간의 실습경험으로 병원 실습처럼 처음 나가는 곳은 긴장되고 불안했던 경험보다는 여유 있고, 설레었다.

“새롭게 시작되는 실습 그 자체에 설레었고요, 어떤 실습을 하게 될지 많이 궁금하고 호기심이 생겼어요.”

“보건소나 어떤 곳 일까하는 생각에 다소 설레었고 병원 실습보다 불안하거나 걱정스럽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서울까지 안가고 지역사회에서 하니깐 편한 느낌이
등떠라구요.”

“저 혼자 방문을 해야할 때 두려웠어요. 제가 선생
님하고 안 나가고 혼자만 나갈 때 잘 할 수 있을
까..... 혹시 실수 할까봐요. 사실 보건소 내에서도 실
수할까봐 조심스럽고 그래요.

“병원과는 너무 다른 게 많아 스트레스도 받곤 해
요. 그리고 저희들이 성인라 정신간호 등 아직 다 못
배우고 나가 여러 대상자들을 만날 때 좀 힘들었어요.”

“처음에 병원실습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서 긴장했
는데 대체로 무난하게 잘 했어요. 숨가쁘게 바빴던 기
역도 없고요,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실습했
던 것 같아요.”

“조금은 정체된 느낌을 받았구요, 지루한 느낌이 드
는 것이 힘들었어요. 빨리 실습 끝나 학교 가서 강의
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구강보건실에서는 어떤 애는 학교에두 가구 그랬는
데 제가 등 때는 하루 종이 책만 봐서 너무 지루했어
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병원에는 같은
병동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이 다 젊고 그랬는데 여기는
아버지, 엄마같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 조심스러워
요. 그런데 친해요. 막 엄마같이 아담도 치세요.”

“지역사회 너무 조심스러워요. 오리엔테이션 때도
그 점을 제일 강조하셨잖아요. 저도 여기 사니까 누구
를 만날 것 같아요. 교수님, 저희들 다 잘 하고 있으
니 걱정마세요.”

“지역사회 간호에 대해 실무 경험을 할 수 있는 유
익한 기회라 성실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책에서
배운 것과 달라서 많이 실망했어요. 선생님들이 방문
후나 방문해서 손은 한번도 안 씻더라고요.”

“방문간호 같은 것은 좀 기다려줘요. 차 타고 갔다
고 하시더라고요. 보건소 차가 있대요. 의사가 형진가
는 것 같잖아요. 그러구 할머니들도 잘 해주신대요.
내일은 방문 보건실이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잘 대해드리니까 너무 좋아하
셔서 부듯해요.”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요, 못 가게 하시더라고요.
좀 뽕뽕했구요, 실습이 끝나도 찾아가려구 해요. 그런
건 괜찮죠? 교수님?”

“선생님께서 한 이천원어치 먹을 것을 사가지고 가
시더라고요! 할머니 드신대구요! 정말 병원과는 달라
요! 정말 많이 느꼈어요.”

“오후에는 거의 많이들 일부로 나가셔서 무척 한가
해요. 실습이 이렇게 여유로운 건 처음이에요. 병식은
밥 먹을 시간도 없거든요. 밥 먹으면 빵랑빵랑 해야하
구요. 여긴 너무 좋아요. 식당도 맛있구요. 그런데 O
O보건소는 전신 제공이 안 된대요. 우리 조는 전신때
도 내워서 맛있는 것도 먹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잘
해주세요.”

“오전에는 복닥복닥대다가 오후에는 한가해요. 저희
들에게 관심을 안 가지세요. 특히 행정직에 계신 분들
이 정말 관심 없더라고요. 각 방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어떤 분은 학생들 4학년이니까 알아서해라... 뭐 그러
세요. 오후에는 뭐 할지 몰라 딱 좋려요.”

2. 보건소에서의 색다른 경험

다른 실습장소하고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이 색다
른 실무 경험을 이야기한다. 두 곳의 실습 보건소에서
의 학생 교육 담당자가 다른 관계로 다소 차이는 있었
지만 이 두 실습 장소에서 색다른 경험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정신보건센터에서는 한자들과 색종이 접구 그랬어
요. 재미있었어요. 벽에 붙여진 그림을 보니까 장등

그러더라고요. 한자가 많진 않았는데요 이런 곳도 있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들 취업 끝난 후에 봉사 좀 하면서 하래요, 그래서 그러겠다고 했어요. 전에 졸업생들두 했대요!”

“기회가 주어지면 모두 다 듣고 싶어요. 학교에서 배운 적 없는 한방치료(한식)도 듣고 싶고 물리치료(물리)도 듣고 싶어요. 하여간 보건소 내 크리닉은 다 듣고 싶어요. 보건소는 양방과 한방이 함께 있는 것이 새로워요..”

“저는 병원에서 인적선감은 거 잘 못했거든요? 그런데 ○○는 아이브이(9.11)두 했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런거 절대 안 시키잖아요. 당뇨 환자 해당 검사두 했구요. 지난번 톱 ○○는 검사실에서 경색군두 봤구..... 저두 꼭 해 보구 싶어요!”

“저는 검사실에서 3명군도 봤어요. 학교에 며칠동안 실습시간이 없잖아요. 그러구 아가씨들이 와서 보건증 보이고 다른 방에 가서 따로 또 검사 하더라고요. ... 저는 궁금해서 들어가도 되냐고 하시니까 선생님이 들어어도 된다고 하셨어요. 저말 들어갔더라고요. 다른 아이들은 아무도 못 들어갔대요..”

“경색관리실도 병동에는 없는 곳인데 선생님이 직접 사진 가지고 설명도 해 주시고, 어떤 사안이 안 있었어요. 선생님이 전하셔서 딱 아담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한자가 거의 없어서 워드 작업 도박더라고요 그랬어요..”

“우리 ○○보건소는 경색관리실이 없구 만성질환 관리실인데 고혈압 환자도 오고 경색환자도 오고 그랬어요. 그러구 확실히 식이요법도 설명해주시고, 보건교육을 하여간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보건교육은 확실히 해 봤어요..”

“물리치료실에서 저는 핫팩 대드리고, 그런 건 임상에서도 해 봤는데요, 처음 해 보는 것도 있었어요. 뭘지... 양 어깨에 연결하고 ...저주파라 하던가... 처음 보는 기계도 많고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오후에는

다른 방으로 가서 충분히 다 해보지는 못 했어요!”

“병원에는 이제 약국이 없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곳이지만 아직 보건소에는 약국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한자가 많이 많고해서 특별히 해야할 일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약국까지 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좋은 경험 같아요..”

“병원에 없는 부서가 많은데요, 그런 데도 한번씩 들면서 선생님들 하는 것 보고, 듣고, 새로운 경험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실습 때는 보통 옆에서 구경만 하라는 선생님도 있는데 여기는 선생님들이 해 보겠냐고 그러시구 다들 친절하세요. 병원에서 못 해본 것 두 많이 해 봤어요..”

“방문 간호는 주로 오후에 나가세요. 참 좋은 경험이었어요. 병원 실습과 비교해서 제일 인상에 남아요”

“정말 지역(사회 간호학)은 실습을 꼭 나가야만 된 것 같아요. 특히 방문 간호는 꼭 한번쯤은 나가볼 만해요. 보건소 실습은 나갔다오면 훨씬 이해가 쉽구요, 병원 실습과는 다른 점도 많구요. 정말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할아버지 혼자 집에 있었는데요, 도시락 하나만 그냥 놓여 있더라고요. 할머니는 일 나가시고 할아버지는 거동을 못하세요. 기저귀 하나 차구 있구 할머니가 오셔서 갈아주신대요. 근데 방문간호사 선생님이 무지 할아버지한테 잘 해주셔요. 친한 것 같았어요. 영양제도 드리고 혈압도 재 드리고..... 근데 오래 있진 못 했어요. 그날 오후에 들려야할 집이 많았거든요. 이렇게 가정 방문 다니다 보니까 보건소 실습은 참 새로운 것이 많구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체적 당전상은 저희들두 같이 요가도 하고 체지방 분석도 해주고 해요.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병원에 운동 처방신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병원과는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3. 자기반성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대상자들은 대개가 독거노인, 영세민층,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취약 인구들이다. 이들의 집을 방문하면서 그동안의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며 그들은 자기반성의 기회를 갖는다

“방문간호를 나가보니 정말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배달되는 도시락으로 하루 세 끼를 해결하는 할머니, 할머니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할머니는 그걸 안 드시고 손자한테 주시더라고요.”

“차에서 내려서 꼬북꼬북 올라 가더라고요. 정말 사냥이 쉽지 않을 것 같은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다려도 많이 아프실텐데. 자식이 둘 있는데 다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정말 북망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사는 할머니들도 계세요. 정말 그런 할머니들 만나니까 제가 행복하다는 걸 알겠어요.”

“가정방문을 통해 빈곤층과 취약계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이번 실습을 통해 간호사로서도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요.”

“날씨가 쌀쌀했는데요, 할머니가 집에 땀냄이 없어 양말을 있는데도 다 끼어신고 옷도 껌껌씩 끼어 입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들은 집안이 따뜻해서 딱 반팔입고 생활하잖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도 기회가 닿으면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요. 그동안 어렵게 살아 온 사람들을 생각해 본적이 없는데 보건소 실습을 계기로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었어요.”

“조촐한 방에서 4식구가 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원래 방이 아닌데 방처럼 앉은 곳에서 한번 쓰러지셔서 계속 누워계시거든요. 아이들 부모는 일하러 나가시구, 할머니는 겨우 방문보건 선생님이 가실 때 만 간호를 받는 것 같았어요. 병원에 한번도 간적이 없대요. 할머니도 방문간호 선생님을 많이 의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도 보건소 실습을 하면서 대충대충 하는 간호사보다는 정말 그 선생님처럼 약지를 위한 대변인이 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 잘 해 주고 싶어요.”

“제 생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고 어려운 이웃, 읍... 소외계층에 대해서도 관심이 증가했어요.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가슴 아팠어요.”

“보건소 선생님들을 보면 어디서나 어느 장소건 사냥을 대할 때는 친척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보건소에 친절교육으로 인해 분위기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방문간호 때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제가 얼마나 행복 지 알겠어요.”

“할머니, 할머니를 보며 제가 공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텅 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했어요. 실습 뿐 아니라 인생공부도 많이 한 것 같아요.”

“방문이 차 다니는 길가에 그냥 붙어 있어요. 위험도 하고 할머니 살기에 정말 안 좋은 곳이에요. 방에서 내려올 때 미끄러지거나도 하면 어떨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4. 보건소와 보건의간호사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

마지막 실습을 끝내면서 학생들은 사고가 성숙하여지고 조직 밖에서 내부 환경을 들여다 볼 수 있을 만큼 성장하였다. 간호사의 정체성이 확립되어가고 돌봄에 대해서도, 졸업을 앞두고 장래 취업할 분야에 대해 진지하게 사고할 기회를 가졌던 것 같다.

“실습을 나오기 전에는 보건소는 영세민만이 이용하고 약도 병원보다 싸고 안 좋은 약을 쓰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시설도, 특히 모자판리실은 소아과보다 예쁘게 꾸며 놓았고 공중보건의 선생님도 항상 계셔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셨어요.”

“병원에서는 볼 수 없는 체력 단련실은 운동량이 부족한 노인들에게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는 좋은 곳이라 생각해요. 거의 매일 오전에 오신다는 분들 계시요. 할머니들도 꽤 많았는데 아마하다가 앉아서 주무시는 분들 계시어요.”

“저는 간호학력 졸업하면 꼭 병원만 생각 했었는데요, 이렇게 보건소에 근무하며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싶어요.”

“방문간호를 하며 정말 느끼는 것이 많았거든요? 많이 있는 특근노인이 있었는데요. 찾아오질 않는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펼쳐줘 너무 잘 해 드리는 것 같았어요.”

“병원은 나이트도하고 3교대 때문에 힘들거란 생각이 드는데 보건소는 그런게 없어 좋을 것 같아요.”

“병원 임상 간호사들 하고는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방문간호 선생님들은 정말 백의의 천사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진심으로 손도 잡아주며 걱정도 함께하고 저런 걸 어떻게 저렇게 하시나 할 때도 있었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방문간호는 정말 봉사 정신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힘든 몫을 이끌고 보건소에 오셨지만 약상 보건소에 오셔서 만족하고 돌아가시는 분은 드문 것 같아요. 어떤 직원들이 불친절해서요. 물어보는 말에 성의 없이 귀찮은 듯 딱 대답하고 차근차근 설명하기 보다는 짜증스럽게 노인들을 대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건 고쳐야겠지만 방문 보건 선생님들은 정말 봉사 정신도

많고 노인들이나 한자등한테 정말 잘 해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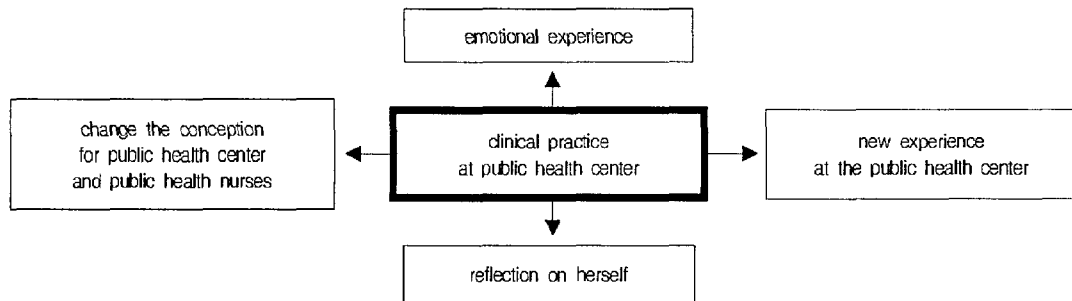
“보건증하러 오는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왔다면 그 할 사람에 대해 미려쿵 저러쿵 판단하여 얘기하는 거 정말 보기 안 좋았어요. 다 좋은데 그런 얘기 들으면 쥘 그래요. 심방도 하구요. 그런데 월급도 꽤 되고 힘든 3교대도 없고 해서 생각해 볼 거예요.”

“양성질환관리실에 계신 분은 의사같으세요. 구강관리실도 선생님이 치과의사가 없어도 혼자 치료도 해주고 방문 간호도 나가고... 하는 일이 많았어요.”

“전에 선배들로부터 들었는데요, 방문간호 나갔는데 알뜰리즘 한자 집이었어요. 그런데 음식은 한 일주일간 안 버리고 그대로 나뒀는지 다 썩고 냄새 나고 구데기가 방바닥, 한자 방가락, 손가락에 딱 거어다니더라고요. 그걸 선생님들과 하나하나 다 떼어 줘대요.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선배들도 대담 했지만 전 방문간호사 선생님들이나 할 수 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 맨날 핑그리고 아픈 한자만 보느니 여기서 일하는 것이 편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양 한자들 은 또 억짜나 힘이 드는데요. 아프다보니까 딱 짜증 내고 우리 학생들은 무서워서 옆에 갈 수도 없을 때가 있어요. 선생님들도 그런데요 뭐....”

“병원은 처음 1,2년은 아무것도 못하고 무척 힘들고 피곤하대요. 특히 나이트하고나면 아무것도 몫이 지부 등하고 안 좋대요. 보건소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Figure 1>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at public health center

IV. 논 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누구나 임상실습을 원하던 원하지 않던 그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대학에 따라 기간과 실습시기가 다소 차이가 있으나 보건소 실습은 지역사회 간호학 실습의 필수 과정이다. 실습에 임하면서 또는 실습 기간 중에 경험하는 학생들의 정서적 경험은 두려움과 기대감, 설레임, 스트레스, 편안함, 여유로움, 편안함, 지루함, 뿌듯함, 실망감, 아쉬움, 안타까움, 후회스러움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Oh, 2003)에서도 도출된 결과와 동일하나 본 연구에서는 언민, 후회, 지루함, 뿌듯함 등의 정서도 표현하였으며 편안함, 여유로움 등의 정서는 병원 실습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정서이기도 하다. 특히 보건소 실습을 나가기 전 이미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14 주 간의 병원 실습을 하였으나 실습장소와 환경변화 등에 대한 적응기간 중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은 선행연구(Ha, 1998; Park, 2002; Park, Lee, Min & Park, 2004)에서 이미 보고한 내용들이다. 낯선 환경에의 극복은 보건소 실습 시작 하루 이틀 지나면서 적응이 되고 보건소 구조 등이 눈에 익어 극복하게 되나 학교측에서는 간호지식이나 기술을 향상시키고 실습 장소 분위기에 익숙해지도록 간호지식 및 환자를 대하는 기술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정서적인 배려와 지지 제공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떨리거나 불안함을 느끼는 이유로는 아직 1년이라는 수학 기간이 남아 학습할 내용이 많은데서 오는 각 영역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과 내소한 대상자들에게 실수를 하게 될지 모른다는 자신감 결여 등이 그 이유였으며 특히 보건소실습의 대상자들은 아동, 모성, 성인, 노인 등 다양하기 때문에 그들의 특성에 따라 대상자들을 대면해야하는 어려움과 현 실습대학과 같이 보건소 한 곳에 지역 내 특정 대학이 실습하는 이유로 학교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 주기 위해서 특히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언행 등을 각별히 조심하라는 학과 교수들의 지침도 실습의 어려움을 더욱 증가시킨다. 따라서 교육적 입장에서 이러한 학생들의 정서적 반응을 잘 파악하여 지지할 수 있는 방안이나 가능한 보건소 실습에 많이 이용되는 학습 내용은

미리 학습을 시키거나 실습 시기를 뒤로 늦추는 것이 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다양한 인력들과 함께 종사를 하는 간호사의 인간관계의 갈등은 간호사들이 경험하는 가장 흔한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로 원만한 인간관계는 간호사의 직무에 대한 만족감과 조직에의 몰입을 강화시키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업무 갈등과 불만, 좌절을 일으키고 직무에 대한 불만족과 이직의 사유가 되어 결국 간호조직을 침체시키고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성 있게 적응하는 것을 저해한다. 학생 간호사 역시 타 학과 학생들에 비해 과중한 학습뿐 아니라 임상실습을 경험해야 하므로 환자 간호에 대한 책임감, 지식부족, 역할적응에 대한 어려움이 많으며 보건소와 같은 환경에서는 나이 차가 많은 직원들 사이에서 언행을 비롯 모든 면을 조심해야하므로 바쁘게 활동하는 병원과 비교해서 다소 시간적 여유가 있는 보건소는 이에 대한 스트레스 역시 호소한다. 스트레스는 발전의 기회도 되지만 심한 스트레스가 계속될 경우 두통,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수반한다. 비록 2주라는 짧은 기간동안의 실습이지만 간호 교육자들은 임상 실습 학생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과 많은 이야기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간호학과 학생들은 실습의 목적 뿐 아니라 삶의 한 부분으로 많은 것을 경험하며 임상실습을 마치게 된다. '삶' 자체가 형용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여러 사건들을 경험하는 것처럼 임상실습의 경우 역시 학생들도 미처 기대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

간호학과 학생들이 실습을 나가는 곳은 크게 병원과 지역사회 나뉘는데 병원에서 실습하지 못한 내용을 보건소에서 경험을 하는 내용도 많다. 병원은 중환자실은 물론 병동에서도 대체로 중계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 관찰, 활력중후의 측정, 침상 정리, 투약준비, 환자 이동 도움 등의 간단한 내용만을 수행하게 하나 보건소에서는 간호제공 주체자로서의 역할을 일부 하게한다. 특히 검사실은 많은 역할을 주며 방문간호 역시 학생들 스스로 방문할 기회도 제공하여 지금까지 수행하지 못하였던 간호 중재도 해보고 환자 평가 역시 스스로 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하므로써 도출되는 또 하나의 스토리는 '자기반성'이다. 실습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습득한 간호지식을 실제 현장에서 통합하고 적용하며 타인들의 삶

을 직접 관찰하고 간접으로 경험하고 실습 교육을 통해 실무장소에서 대상자들에게 질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직 간호사를 양성하는데 있으나 직업적인 면을 떠나 학생들은 보건소실습을 통하여 귀중한 삶의 체험과 자기반성 및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는 병원실습에서는 거의 경험할 수 없는 체험기회가 적은 인본주의적인 모습이며 이들의 인생에 귀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특히 보건소 실습 가운데 핵심인 방문간호는 보건소 실습을 하지 않고는 사회의 그늘진 면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학생들에게 자기 성찰과 반성할 기회를 제공하여 이제 곧 사회인이 될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봉사정신을 심어줄 것은 물론, 방문간호를 함으로써 실습학생들 자신이 누군가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가치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확신에 자존감도 높아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보건소 실습을 통하여 보건소와 보건 간호사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가 형성되었다. 실습 전에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대상자들은 영세민이며 시설 및 장비도 다른 의료기관과 비교할 때 미진하여 검사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병원보다 질이 떨어지는 저가의 약품을 사용할 것이라는 왜곡된 선입견(Han & Cho, 1999)을 가지고 있었으나 보건소에서 실습을 함으로써 그러한 생각이 사라졌다고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곧 취업을 앞 둔 학생들은 보건소 실습을 경험한 후 자신의 진로를 입장에서 보건소로 방향을 전환하기도 한다. 근무시간, 스트레스 받는 정도, 승진의 시기 등 입상보다 유리한 점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이 보건소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의 상황은 방문간호 사업영역에서 관리상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적 된 것이 방문간호 담당 인력 부족(Ryu & Hwang, 2004)인 만큼 간호직을 증가 시켜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이를 수용하지 못해 취업의 문은 아직 좁다. 97년에 비해 2001년도의 업무 실적은 평균 40.1%가 증가한 반면 보건소 인력은 전체 6.6%증가를 보여 보건소 사업 업무 변화에 비해 보건소 인력의 증가가 아주 경미하다고 볼 수 있다(Choi, 2004). 현재 보건소의 직제에서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100여개 보건소에 건강증진 기금을 지원하기에 이르렀다. 이 지원사

업은 다양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게 되는 바 가장 유용하게 이용 될 인력은 역시 간호직이다. 그러므로 현 보건소 인력 상태에서 인적자원을 증가해야 함은 당연하다.

학생들은 특히 방문간호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여 보건소 실습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야 할 부분이 방문간호라 생각되며 간호교육자들은 학생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실습경험을 분석하여 세심한 관심으로 실습 내용을 재조정하여 실용학문으로서의 간호는 이론이 실무장소에서 적용될 수 있을 때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을 경험하도록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학생들의 보건소실습 경험의 의미와 구조를 확인하고 모든 과정을 총체적으로 밝히기 위하여 시도한 내러티브 탐구를 이용한 질적 연구이다. 연구 참여자는 첫 실습을 하는 간호학과 4학년 학생 17명을 편의 추출하여 설문지와 관찰 그리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료를 수집 하였다. 실습과 관련하여 학생들은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였으나 실습생들은 긍정적인 간호사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려는 태도를 보여 주었고 임상실습을 통해 간호학도로서 정체감을 형성한 계기도 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실습 전과 실습 과정을 거치면서 학생들은 떨림, 두려움, 불안, 기대감, 뿌듯함, 연민, 한가함, 여유있음, 스트레스, 두려움 등의 정서적 경험을 이야기한다. 특히 뿌듯함, 연민, 자기반성 등의 정서적 경험은 다른 실습과는 달리 방문간호로 인해 나타나는 정서적 특징이다.
2. 병원에서 경험하지 못한 방문간호, 정신재활센터, 검사실, 체력 단련실, 물리치료실 등에서 실습하며 새로운 실습내용을 경험한다. 특히 방문간호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였으며 그만큼 보건소 실습 중 방문 간호에 대한 비중은 크다할 수 있다.
3. 보건소 실습을 통하여 특히 병원실습에서 경험할 수 없는 방문간호를 하면서 대상자들의 주거환경, 경제적 상태, 사회적으로 빈약한 역할 등을 직접 느끼며 자기 반성의 기회를 갖게 된다. 자신들을

대상자들과 비교함으로써 건전하고 더욱 가치있고 겸허한 자세로 삶을 받아드리는 경험을 하는 계기가 된다.

4. 2주 동안 보건소 실습을 하면서 보건소와 보건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새로워지며 학생들은 임상간호사와 비교하여 보건 간호사로서의 장점을 살려 보건 간호사로 근무하기를 희망하기도 한다.

이상의 결론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내러티브 탐구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수집을 하여 분석해보는 연구도 실시되어야 한다.
2. 이야기 증 도출된 실습의 어려움을 찾아내어 이를 보완 한 후 변화 된 실습경험과의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Ahn Eun Ju (2005). The Study of Level of Interactive narrative in Interactive Advertising, master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Benner & Rubber (1989). The Primacy Caring, Stress and Coping in Health and Illness, Addison-Wesley Pub.
- Choi Yeon Hee (2004). A Survey on Awareness of health Education in the Manpower of Public Health Center. *Journal of Korean Community Nursing* 15(4) 528-538.
- Connelly, F. M., & Clandinin (1990). Stories of Experience and Narrative Inquiry. *Educational Researcher*, 19(5), 2-14.
- Education committee, The Korean Nurses Academic Society (1992). Survey of Uses of Evaluation tools for Student's Clinical Competency.
- Han Kyoung Soon, Cho Ju Yeon (1999). A Stud on the Experience of Fundamental Nursing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9(3), 293-301.
- Han Kyoung Soon, Park Eun Hee, Cho Ju Yeon (2000). An Inquiry into Subjectivities of Fundamental Nursing practice Attitud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0(3), 682-693.
- Hwang Seung Sook (2004). A Study on Nursing Student Volunteer Experience in Visiting Ambulatory Bathing Serv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15(2), 308-322.
- Koh Myoung Sook (1997). The Observation Experience of Labor and Delivery by Students Nursesin the Clinical Sett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7(4), 892-900.
- Kwon In Soo (2002). An Analysis of Research on Clinical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2(5), 706-707.
- Kvale, S. (1995). Interview. Shin Kyung Rim (1998). Hana Medical Pub. Seoul, Korea.
- Kim Kwuy Bun, Kim Hea Sook, Lee Kyung Ho (2001). Clinical Nurses's Professional Conflic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1(3), 492-505.
- Kim Sun Ok, So Hee Young, Kim Hyun Li (2003). A Study on the Fatigue and health Nurses and Hospital Nurses *Journal of Korean Community Nursing*, 14(4), 698-706.
- Mors, J. M., & Field, P. A. (1995). Qualotative Research Methods for Health professiosals.
- Oermam, M. H (1996) Research on Teaching in the Clinical Setting. In the K.R. Stevens (Eds). Review of Research in nursing education(91-126), VolVII, NLN Press.
- Oh Won Oak (2002). Factors Influencing Self-Dejectedness *Journal of Korean*

- Academy of Nursing*, 32(5), 684-694.
- Park Kyung Ae, Song Mi Ryung (2001). Factors that Influence Nursing Image perceived by College Student. *Journal of Korean Community Nursing*, 31(4) 584-595.
- Park Kyung Min (2003). Evaluation of Visiting Nursing Services for the Vulnerable Family in Urban Community. *Journal of Korean Community Nursing*, 15(1), 56-66.
- Park Jung Mo, Lee Suk Jeong (2002). Evaluation of Community Health Nursing Practice and Nursing Student's Clinical Experience at Public Health Centers. *Journal of Korean Community Nursing*, 13(1), 161-170.
- Park Jung Mo, Lee Suk Jung, Min So Young, Park Sook Kyoung (2004). Nursing Students' Experience In Visiting Care Practice, *Journal of Korean Community Nursing*, (2), 323-331.
-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Ind. London : Sage Publications. Kim Soo Ji, Shin Kyung Rim (1996). Understanding of Ground Theory. Han Wul Acadeu. Seoul, Korea.
- Ryu Ho Shin, Myoung Jae Il, Hwang Rah Il (2003). An Estimation on the Need and Supply for Visiting Nursing Services of health Center in Seoul. *Journal of Korean Community Nursing*, 14(4), 587-597.
- Ryu Ho Shin, Hwang Rah Il (2004). A study on the status and Policy Issues of Visiting Nursing Programs at Public Health centers in Urban area. *Journal of Korean Community Nursing*.
- Strauss, A., & Corbin, J.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 Techniques and
- Strokes & Lillian (1998) Teaching in The Clinical Setting. In The D>M Billings & J.A. Halstead(Eds.). Teaching in Nursing, Saunders comp.
- Yoo, Moon-Sook, You Il Young, Park Yen Ok, Son Youn Jung, Son Youn Jung (2002). Comparison of Student's Clinical Competency in Different Instruction Methods for Fundamentals Nursind Pacticum, *Journal of Korean Community Nursing*, 32(3), 327-335.
- Youn Ji Sook (1999). Understanding of Children's Word by Narrative Inqui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Anthropology of education* 2(3).

ABSTRACT

A Study on Nursing Students' Experience during Clinical Practice at a Public Health Center

Choi, Hye Jung(Department of Nursing, Hanzhong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during clinical practice at a public health center. **Method:** This research used narrative inquiry for data collection. From April 2005 to June 2005,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by open-ended interview, questionnaire and close observation. The participants, who were student nurses, were willing to take part in this study. **Results:** On the basis of these data, the experiences of clinical practice at public health center were: 1) when the student nurses begin clinical practice at public health centers for the first time, most of the students feel fearful, nervous and stressed. They also mentioned having a hard time being polite to clients and the staff. 2) The students had new experiences at the health public center compared with clinical practice. Especially, the student nurses who were determined to be good nurses were doing home visiting care service. Not only did they have the opportunity to confirm their identity as nurses, but also the students change their career course from clinical nursing to public health nursing. 4) They reflected on themselves after home visiting care service. **Conclusion:** On the basis of these findings,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are made. 1)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are needed, not only through the narrative method, but also through other various qualitative methods. 2) Comparative study is necessary to enhance clinical experience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interfering factors and the original experiences.

Key words : Clinical practice at public Health Center, Narrative